

여성의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재진입*

김 주 영**

I. 머리말

201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남성과 5%포인트 이상 격차가 있던 것이 2009년에는 처음으로 남성의 대학진학률을 앞지르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학력 여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여성의 경제활동은 여전히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에서 남성과의 격차를 보면 최근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20%포인트를 상회하는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자체도 여전히 50%를 크게 넘지 못하는 낮은 수준에 있다.

<표 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남성	75.7	75.7	76.3	76.4	76.2	76.1	75.1	74.4	74.4
여성	47.1	47.1	47.8	48.4	48.9	49.8	47.1	47.6	48.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남성	74.3	75.0	74.7	75.0	74.6	74.1	74.0	73.5	73.1
여성	49.3	49.8	49.0	49.9	50.1	50.3	50.2	50.0	49.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이 글은 김주영 외(2010), 『노동시장 재진입에 관한 연구』 제2장을 요약수정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jykim@kli.re.kr).

<표 2> 고용률의 변화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고용률	60.8	60.9	56.4	56.7	58.5	59.0	60.0	59.3	59.8	59.7	59.7	59.8	59.5	58.6
남성 고용률	74.4	73.9	69.2	69.1	70.7	71.0	72.2	71.9	72.0	71.6	71.3	71.3	70.9	70.1
여성 고용률	48.1	48.6	44.4	45.2	47.0	47.7	48.4	47.7	48.3	48.4	48.8	48.9	48.7	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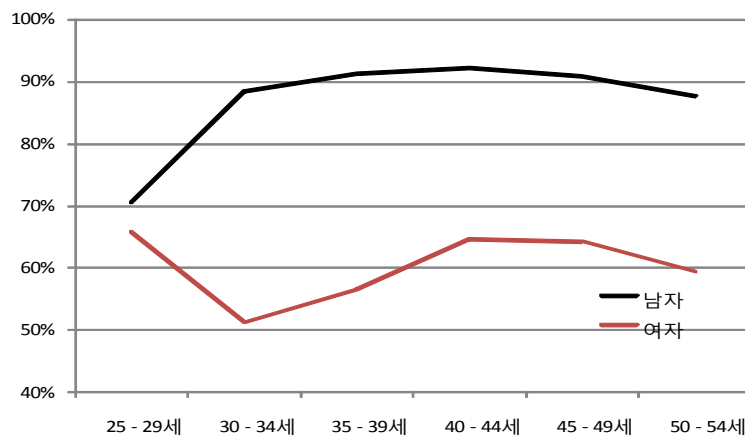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2010년 『OECD Employment Outlook』에 따르면 2009년 15세에서 64세까지 연령대의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보다 7.4%포인트 낮은 수치이며, 미국과는 15.1%포인트, 영국과는 16.3%포인트의 격차가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2014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6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도개혁과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10%포인트 이상 상승시키려면 전면적인 개혁과 지원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시급하리라 본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달리 일자리를 잃은 경우 실업자로서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이 짧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빨리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바로 고용되는 비중이 높아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가 실업인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좀더 고용인구의 크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여성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에서 제시된 것처럼 여성의 고학력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여성 고용률은 큰 변화가 없으며 다소 정체된 상태이다.

[그림 1] 연령대별 남녀 고용률(최근 3년간 평균: 2007-09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러한 낮은 여성 고용률에는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앞의 [그림 1]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의 남녀 연령대별 평균고용률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남성의 연령대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20대 후반에 70% 정도에서 시작하여 40대 중반에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그 후 하락하는 완만한 역U자형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여성은 20대 후반 66% 정도에서 30대에 고용률의 급락을 보이고 그 후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여성 고용률의 제고에 주요한 걸림돌임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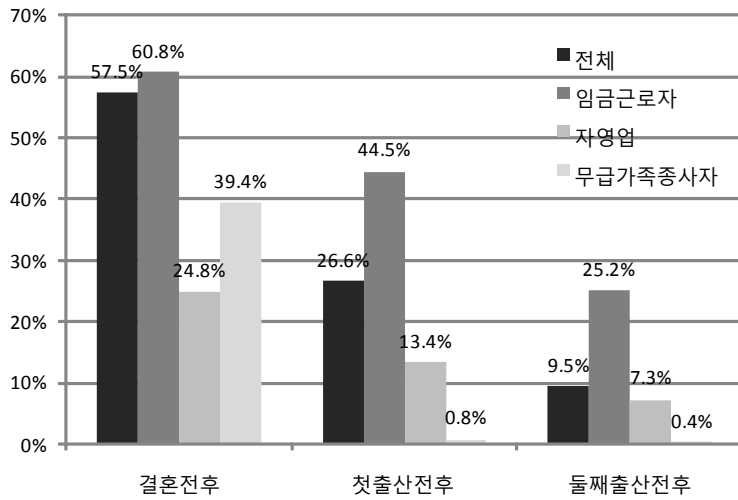
본 연구는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여성경력단절 및 재진입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채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결혼이나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여성의 경력단절

결혼, 첫 출산, 둘째 출산 전후로 기존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여성이 일자리를 그만둔 비율을 종사상 지위별로 비교하여 보면 [그림 2]와 같다. 결혼을 전후로 일자리를 그만둔 비율이 임금근로자는 60.8%, 자영업자는 24.8%,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39.4%로 임금근로자가 일자리를 그만두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의 지위에 관계없이 결혼 전후에 일자리를 그만두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첫 출산과 두 번째 출산으로 진행하면서 일자리를 그만두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결혼 전후에 이미 상당수의 여성들이 일자리를 그만두며 갈수록 노동시장에 선택적으로 남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물론 결혼, 첫 출산, 둘째 출산에 포함된 표본이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는 문제가 있다.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둘째 출산의 경우는 더욱 선택적일 수 있으므로 이행과정에서 관측치의 이탈로 인한 대상집단의 변화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만 종사상 지위별로 볼 때 제시된 세 가지 가족사적 사건 모두에서 임금근로자가 일자리를 떠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결혼, 첫 출산, 두 번째 출산 시점에서 일자리를 그만두는 비율을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의 학력 여성의 경우 결혼 전후에 일자리를 그만두는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첫째와 둘째 출산시에 그만두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장 급격하게 하락하여 둘째아이 출산 경우에는 겨우 6% 정도만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문대 및 대졸 이상 학력 여성의 경우 고졸 여성에 비해서 결혼으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비율이 낮았으나 출산으로 인해 그만두는 비율에서는 고졸 여성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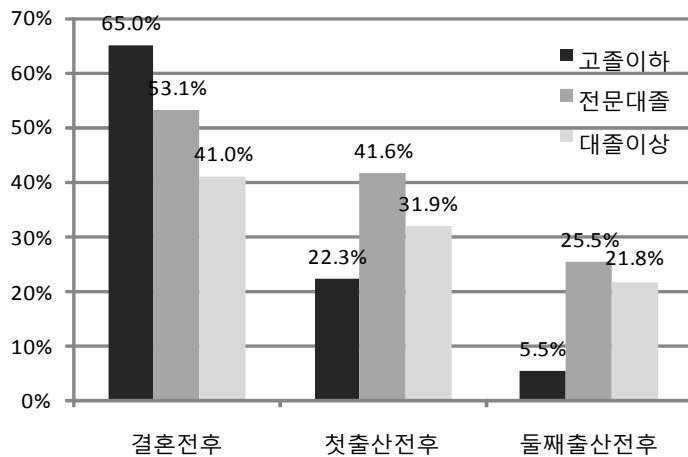
[그림 2] 결혼과 출산 전후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비율(종사상 지위별)



주: 무급가족종사자는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 근무자만 포함.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여성가족패널 1차 조사」.

학력에 따른 일자리를 떠나는 비중이 가족사적 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고학력일수록 결혼으로 그만둘 때의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출산할 때까지 퇴직을 지연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출산 및 육아에 있어서의 여성 취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고졸 이하의 여성층보다는 전문대 및 대졸 이상의 여성층의 경력지속에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결혼과 출산 전후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비율(학력별)



주: 무급가족 종사자는 18시간 이상 종사자만 포함.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여성가족패널 1차 조사」.

〈표 3〉 일자리를 그만둔 여성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구분

(단위: 명, %)

그만둔 일자리		결혼 후		첫 출산 후		둘째 출산 후	
임금근로자	상용직	2,022	2071 (92.3%)	572	594 (92.4%)	124	130 (85%)
	임시직	42		20		5	
	일용직	5		3		0	
	무응답	2		0		1	
자영업 및 농수산업		62 (2.8%)		39 (6.1%)		19 (12.4%)	
주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93 (4.1%)		6 (0.9%)		3 (2%)	
주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		7 (0.3%)		1 (0.2%)		0 (0%)	
무응답		11 (0.5%)		3 (0.5%)		1 (0.7%)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여성가족패널 1차 조사」.

결혼 및 출산으로 일자리를 그만둔 여성의 종사상의 지위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가 92.3%, 92.4%, 85%로 모두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임금근로자가 일자리를 가진 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겠지만, 앞의 [그림 2]에서 보듯이 임금근로자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노동시장의 여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또한 그만둔 여성 임금근로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상용직이라는 사실을 볼 때 경력단절의 문제는 여성의 고용의 질 개선과도 깊이 관련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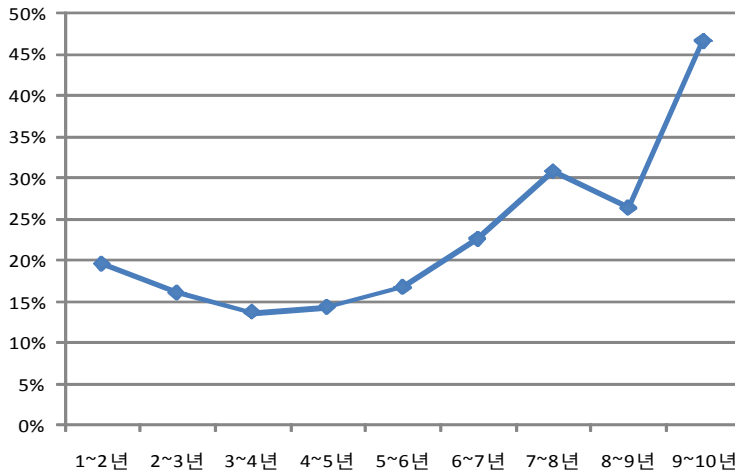
III.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1. 노동시장 재진입의 특징

[그림 4]는 첫 출산 전후로 일자리를 그만둔 여성을 대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고용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첫 출산 후 3-4년 정도까지는 고용률이 상승하지 않지만 그 뒤 점진적으로 상승하다 5-6년을 지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특히 자녀의 취학시기와 여성취업의 가파른 상승시기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 보육 및 육아의 문제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에 중요한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현상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아니고 추가적인 고용률의 하락이 첫 출산 이후에 몇 년 있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것이다. 이 기간은 경력이나 숙련의 감가상각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문이므로 노동수요의 측면에서 장점이 작용하는데다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개인적 환경이나 이질성도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록 출산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지만 이는 아이를 갖지 않은 여성들을 포함한 것이므로, 첫째를 가진 여성이 둘째를 가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할 때 3~4년째까지의 하락은 둘째 출산 및 그에 따른 육아 부분의 영향이 또한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4] 첫 출산 후 일자리를 그만둔 여성 집단에서 자녀의 성장에 따른 취업 복귀 (첫 출산 후 10년 이내)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08), 「여성가족패널 1, 2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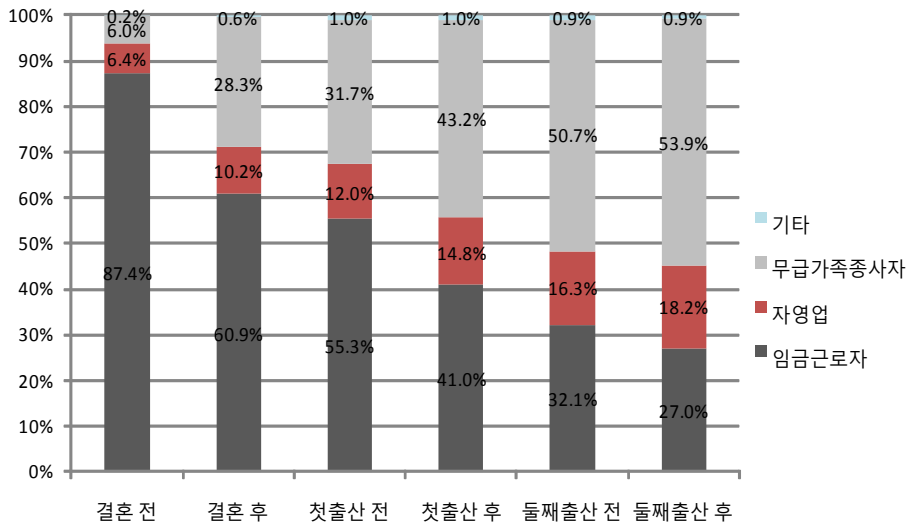
아래의 <표 4> 및 [그림 5]는 결혼과 출산을 거치면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종사상 지위의 비중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결혼전 87%이던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둘째 출산 후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여성 중에서는 27%만이 임금근로자이다.

<표 4> 여성의 종사상 지위 비중의 변화

	결혼 전	결혼 후	첫 출산 전	첫 출산 후	둘째 출산 전	둘째 출산 후
임금근로자	3,408 (87.4%)	1,492 (60.9%)	1,336 (55.3%)	797 (41%)	516 (32.1%)	416 (27%)
자영업	250 (6.4%)	251 (10.2%)	290 (12%)	287 (14.8%)	261 (16.3%)	281 (18.2%)
무급가족종사자	236 (6%)	694 (28.3%)	765 (31.7%)	841 (43.2%)	814 (50.7%)	830 (53.9%)
기타	7 (0.2%)	14 (0.6%)	23 (1%)	20 (1%)	15 (0.9%)	14 (0.9%)

주 : 기타는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와 무응답을 포함.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여성가족패널 1차 조사」.

[그림 5] 여성의 종사상 지위 비중의 변화



주: 기타는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와 무응답을 포함.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여성가족패널 1차 조사」.

반면에 자영업의 비중은 결혼전 6.4%에서 둘째 출산 후 18.2%로 상승하였고, 주당 18시간 이상의 무급가족종사자는 6%에서 53.9%로 그 비중이 급격히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표 3>에서의 임금근로자의 급격한 감소를 확인하는 것이며, 또한 경력단절 후 재진입시 상당수가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로 다시 일자리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표 5>에서는 첫 출산 시점에서 일자리를 그만둔 여성이 그 후 재취업하였을 때의 직종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재취업 비율은 관리자 직종과 장치기계 조립 및 조립종사자 직종 경력자에게서 가장 높았으나 관측치의 숫자가 너무 적어 신뢰성이 낮다. 그 다음으로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직종 경력자의 경우 24.6%의 재취업률을 보이는데, 전문직에서 전문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높아서 전문성이 있는 경우의 재취업에서의 이점을 보여 주고 있다. 사무종사자직종 경력자의 경우 24.8%의 재진입률을 보이는데, 사무종사자직에서 동일직종으로 이동한 경우가 13명으로 사무직종 재취업자의 1/3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 직종과 마찬가지로 동일직종으로의 이동 비율이 높다. 판매종사자 직종의 경우가 가장 다양한 과거 직종에서 재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재진입의 문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재취업자 66명 중에서 29명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직종에 종사하는데, 이는 직업대분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직업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사회복지, 보육 및 교육 관련 인력수요의 증가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5> 첫 출산 전후 일자리를 그만둔 여성의 2차 조사 시점에서의 직종변화(첫 출산 후 10년 이내 집단)
(단위: 명)

첫 출산	2차										재취업자 (계)	미취업자	
	1	2	3	4	5	6	7	8	9	무응답			
1		2		1								3	1
2		13	2		2							17	52
3	1	8	13	3	3						2	30	91
4		4			2			1				7	40
5				1	3							4	18
6												0	
7		2			1							3	14
8					1							1	2
9									1			1	4
무응답													2
전 체	1	29	15	5	12	0	0	1	1	2		66	224

주: 직종번호는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 사무종사자, 4. 서비스종사자, 5. 판매종사자, 6. 농임업 및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8. 장치기계조립 및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종사자, 10. 군인.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08), 「여성가족패널 1, 2차 조사」.

2. 재취업 요인들의 효과 추정

여성가족패널 1차(2007년) 및 2차(2008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모델 1, 2, 3에서는 결혼 전후로 일자리를 그만둔 여성집단을 대상으로 조사 당시의 취업상태를 미취업을 0, 취업을 1로 하여 종속변수로 두고 재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델 2는 모델 1에 결혼과 인터뷰 시점 사이의 기간을 월단위로 측정한 결혼기간변수를 추가함으로써 결혼기간의 경과에 따른 복귀효과를 통제하고 있으며, 모델 3은 모델 2에 결혼 당시 그만둔 직종을 직종더미변수로 포함시켜 이전 직종에 따른 노동시장참여 효과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모델 1, 2, 3의 추정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배우자의 일자리 여부가 여성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배우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무직과 대비해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무직인 기준을 고려했을 때 배우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재진입한다. 변수들의 표본평균값을 대입하여 배우자 임금근로자 더미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니 배우자가 임금근로자의 지위를 잃고 무직이 될 때 0.14 정도 여성의 재진입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는 무직인 경우와 비교할 때 1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배우자가 자영업에 종사할 때 무직의 경우와 비슷하게 여성의 재진입 확률이 임금근로자 대비 높은 것은 여성의 재취업이 배우자가 자영업을 하게 되면 동업이나 가족무급종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에서 제시된 <표 4>와 [그림 5]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과 일맥상통한다. 표본평균값에서 다른 변수 값이 일정할 때, 물론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음을 염두에 뒀다 하지만, 무직에서 자영업으로 배우자의 일자리 상태가 바뀔 때 0.074만큼의 재진입확률 증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는 자영업이나 가족사업에서의 여성의 적극적인 역할을 나타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력단절 후 재진입하는 여성이 가족종사자 등의 형태로 주로 재진입하는 것으로 볼 때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재취업의 취약성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배우자의 다른 영향들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월소득은 세 모델 모두에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왔는데 배우자의 월소득은 여성의 재취업확률을 낮추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월소득이 높을 경우 소득효과로 인하여 여성이 굳이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오히려 역할분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본평균에서 측정한 결과 표본평균값에서 배우자의 월소득이 100만 원 증가할 때 재취업확률이 0.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나이는 유의한 요소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배우자의 교육연수는 모델 1과 2에서는 각각 5% 및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학력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는 세 모델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의 제곱은 세 모델 모두에서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값을 나타냈다. 세 모델에 제시된 나이와 나이의 제곱을 고려하여 나이의 효과에 따른 여성 재진입 나이의 최고점을 계산하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대체로 결혼을 한 경력단절 여성은 모델 2와 3에서는 39세, 모델 1에서는 46세에 나이에 따른 여성의 재취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의 수에서는 미취학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유의하게 재진입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진출의 장애를 보여주고 있으며, 취학한 자녀의 수(7~18세)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5세 미만의 자녀의 수가 5~6세 자녀의 수보다 더 크게 음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왔다. 표본평균에서 측정하였을 때 5세 미만의 자녀는 여성취업에 있어서 0.125의 재진입확률 감소의 한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6세 사이인 경우 0.116의 재진입 확률 감소의 한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취학한 후인 7세 이상 18세 이하의 경우 음의 부호가 양으로 변화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는데, 미취학 아동에 있어서의 보육으

<표 6> 여성의 재취업 확률 추정(종속변수 : 여성의 일자리 유무)

		모델 1	모델 2	모델 3
배우자 속성	배우자 임금근로더미 (기준= 일자리 없음)	-0.582 *	-0.570 *	-0.601 *
		(0.332)	(0.335)	(0.336)
	배우자 자영업더미 (기준= 일자리 없음)	0.359	0.371	0.321
		(0.342)	(0.345)	(0.346)
	배우자 월소득	-0.00220 ***	-0.00238 ***	-0.00236 ***
		(0.000521)	(0.000528)	(0.000539)
	배우자 나이	-0.0126	-0.0432	-0.0381
	(0.115)	(0.116)	(0.117)	
	배우자 나이제곱	0.000185	0.000226	0.000157
		(0.00125)	(0.00126)	(0.00127)
	배우자 교육연수	-0.0682 **	-0.0513 *	-0.0449
		(0.0297)	(0.0302)	(0.0318)
여성 본인 속성	여성 전문대졸 더미	0.0407	0.110	0.0149
		(0.205)	(0.206)	(0.215)
	여성 대졸 이상 더미	0.197	0.313	0.226
		(0.198)	(0.201)	(0.213)
	여성 나이	0.384 **	0.381 ***	0.393 ***
		(0.119)	(0.121)	(0.122)
	여성 나이제곱	-0.00420 ***	-0.00489 ***	-0.00505 ***
	(0.00141)	(0.00143)	(0.00145)	
	결혼 기간(개월)	No	0.00750 ***	0.00768 ***
			(0.00190)	(0.00194)
	여성 결혼당시직종포함여부	No	No	Yes
자녀 수	자녀수(5세 미만)	-0.647 ***	-0.552 ***	-0.545 ***
		(0.167)	(0.169)	(0.170)
	자녀수(5 ~ 6세)	-0.531 ***	-0.493 **	-0.505 **
	(0.200)	(0.201)	(0.202)	
	자녀수(7 ~ 18세)	0.0722	0.0553	0.0577
		(0.0818)	(0.0833)	(0.0839)
자산		-0.00138 **	-0.00139 **	-0.00137 **
		(0.000638)	(0.000644)	(0.000655)
지역별 여성 고용률		0.0414 **	0.0430 **	0.0401 **
		(0.0171)	(0.0173)	(0.0175)
상수		-8.580 ***	-7.721 ***	-7.449 ***
		(2.077)	(2.094)	(2.705)
비교		N=1401, Pseudo R ² =0.15	N=1400, Pseudo R ² =0.16	N=1396, Pseudo R ² =0.17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로 인한 문제가 여성 취업에 주요한 장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자산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택의 가격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자가의 경우 주택가격, 전세인 경우는 전세금의 금액을, 월세인 경우는 12개월의 월세에 만일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을 합하였다. 주택가격은 5%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산의 음의 효과를 보여준다. 표본평균에서 측정하였을 때 주택 자산가치가 1,000만 원 증가시 여성의 재진입확률에서 0.0031의 감소를 보였다.

사회환경적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서 광역시 및 도 수준에서의 여성의 고용률을 변수로 포함시켰다. 여성의 지역별 고용률 변수에 관한 추정결과를 보면 모델 2와 모델 3에서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져서 높은 여성고용률의 사회적 환경이 여성의 재취업에 또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델 2와 3에서는 모델 1에 첫 결혼과 인터뷰 시점 사이의 기간을 추가 변수로 사용하였다. 1% 유의수준에서 두 모델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는데, 이는 결혼으로 인해 일자리를 그만둔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욕구가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델 3은 모델 2에서 여성의 결혼 당시 그만둔 직종을 10가지로 분류하여 더미변수로 포함시켰었는데 기존 변수들의 추정값들은 큰 변화 없는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종속변수를 시간제 일자리와 전일제 일자리로 구분하여 로짓분석을 하였으며 그 추정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은 시간제와 전일제의 선택에 있어서 결정요인들의 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모델 2와 모델 3의 차이에서처럼 모델 4와 모델 5는 결혼으로 일자리를 그만둔 당시의 여성의 직종변수 포함여부만 차이가 난다.

배우자의 임금소득자 및 자영업 여부의 경우 임금소득 및 자영업 여부가 모두 음의 값을 보여주었지만 10%의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그 크기에서 보면 시간제인 경우 영향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월소득은 시간제 일자리의 선택에서는 5%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전일제 선택의 경우에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그 크기로 볼 때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진출의 경우가 배우자의 월소득에 좀더 큰 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의 나이와 교육연수 그리고 여성의 학력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성의 나이와 나이의 제곱항에서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나이의 영향이 재취업을 가장 높게 만드는 나이구간은 전일제와 시간제 모두 44-46세 구간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의 경우 시간제의 경우 음의 부호가 나타났지만 10%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고 전일제의 선택에서는 5세 미만 아동수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그리고 5~6세 자녀

<표 7> 여성의 재취업 확률 추정(종속변수: 시간제 종사여부 및 전일제 종사여부)

	모델 4		모델 5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배우자 속성	배우자 임금근로더미 (기준= 일자리 없음)	-0.403 (0.797)	-0.528 (0.489)	-0.270 (0.808)	-0.505 (0.495)
	배우자 자영업 더미 (기준= 일자리 없음)	-0.221 (0.834)	-0.781 (0.525)	-0.161 (0.844)	-0.791 (0.531)
	배우자 월소득	-0.00374 ** (0.00156)	-0.00291 *** (0.000982)	-0.00398 ** (0.00162)	-0.00302 *** (0.00101)
	배우자 나이	-0.0674 (0.319)	-0.0461 (0.192)	-0.0935 (0.309)	-0.0721 (0.195)
	배우자 나이제곱	-0.000228 (0.00343)	-0.000362 (0.00210)	-7.65e-05 (0.00337)	-9.35e-05 (0.00213)
	배우자 교육연수	0.0538 (0.0753)	-0.0506 (0.0462)	0.0234 (0.0785)	-0.0621 (0.0483)
	여성본인 속성	여성 전문대졸 더미	0.175 (0.475)	0.237 (0.317)	0.0764 (0.493)
여성 대졸 이상 더미		-0.601 (0.602)	0.343 (0.315)	-0.721 (0.618)	0.176 (0.331)
여성 나이		0.742 ** (0.372)	0.379 * (0.203)	0.712 * (0.367)	0.389 * (0.206)
여성 나이제곱		-0.00845 * (0.00436)	-0.00436 * (0.00241)	-0.00798 * (0.00428)	-0.00451 * (0.00244)
결혼 기간		0.00920 * (0.00479)	0.00784 *** (0.00297)	0.00928 * (0.00511)	0.00794 ** (0.00309)
여성결혼당시직종포함여부		No	No	Yes	Yes
자녀 수		자녀수(5세 미만)	-0.556 (0.494)	-0.731 ** (0.288)	-0.584 (0.498)
	자녀수(5 ~ 6세)	-0.214 (0.531)	-0.600 * (0.338)	-0.248 (0.538)	-0.652 * (0.341)
	자녀수(7 ~ 18세)	0.185 (0.214)	0.200 (0.130)	0.206 (0.218)	0.212 (0.131)
자산	-0.00273 (0.00203)	-0.00263 ** (0.00125)	-0.00293 (0.00206)	-0.00267 ** (0.00127)	
지역별 여성고용률	-0.00352 (0.0444)	0.0434 * (0.0253)	0.00448 (0.0450)	0.0445 * (0.0258)	
상수	-15.77 ** (6.500)	-8.145 ** (3.422)	-34.62 (0.01)	-6.312 (3.918)	
비고	N=1023, Pseudo R ² =0.12		N=1021, Pseudo R ² =0.13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수의 경우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그 크기에 있어서도 시간제보다 전일제에서 음의 값이 더 컸으며, 자녀의 나이구간별로 보면 5세 미만의 음의 크기가 5~6세의 경우보다 더 컸다. 반면에 취학 후의 자녀를 둔 경우 음의 효과가 사라졌다. 이를 통해서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의 문제가 전일제 근로처럼 취업에 있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노동시장 진입에 더 큰 장애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가격이라는 대리변수를 통한 자산의 효과는 전일제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지역별 고용률은 시간제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지만, 전일제의 경우 10% 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값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한 사회적인 환경이 여성 개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양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기간의 경우 10%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게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일자리를 그만뒀을 경우 이로 인한 인적자본의 감가상각이 지속되어 시간이 지나면 더욱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주장과는 다른 결과인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일자리의 재진입이 대부분 인적자본의 축적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진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IV. 요약 및 시사점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50%를 겨우 넘어서기 시작했으나 남성과 비교할 때 여전히 2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낮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수준은 경제활동참가율에서 볼 때 2009년 기준으로 미국에 15.1%포인트, 영국에 16.3%포인트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한국의 낮은 여성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이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 고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나타난 여성고용률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전후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비중이 고졸 이하 학력의 여성이 가장 높았으나 첫째 및 둘째 출산에서는 전문대 및 대졸 이상의 여성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일자리를 그만둘 때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고학력일수록 더 크기 때문에 더 늦게 그만두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자리를 그만둔 여성의 대부분은 임금근로자였으며, 그 중에서 상용직의 비중

이 가장 높았고 재진입할 때는 주로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로 진입하는 여성이 많았다.

셋째, 첫 출산 후 일자리를 그만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첫 출산 이후의 취업복귀에서 아동이 취학하는 시기와 비슷한 시기부터 취업률이 뚜렷이 상승한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처음 3~4년 동안의 경우 오목한 모양의 고용률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는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개인적 특성의 이질성과 감가상각이 심한 기술이나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일찍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보통 첫 아이를 출산한 집단의 경우 둘째를 가지는 경우 또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둘째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넷째, 결혼 전후로 일자리를 그만둔 여성에 대하여 여성가족패널의 2차 조사 시점에서의 취업여부 및 시간제/전일제 종사 여부를 기준으로 여성재취업의 주요결정요인을 로짓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배우자의 월소득에 강한 음의 효과를 나타내며, 주택가격을 대리변수로 넣은 자산의 경우도 시간제 취업을 제외하면 뚜렷한 음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남성의 일자리 여부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일자리가 무직에서 임금근로자로 바뀔 경우 음의 효과가 있지만 배우자의 일자리가 무직에서 자영업으로 바뀌는 경우 음의 효과가 없는데, 이와 같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배우자의 일자리가 자영업일 때는 무직일 때와 비슷하게 높은 이유는 여성의 재진입을 통한 일자리 형태가 가족종사자나 자영업에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모델 1에서 5를 통한 추정결과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육아의 문제가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매우 중요한 장애물임을 보여준다. 특히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의 결과를 보면 자녀를 제대로 돌봐줄 수 있는 육아서비스의 제공 문제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문제에 직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시간제 일자리에서는 전일제 일자리만큼 자녀수의 영향에 유의한 음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여성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 근무시간제의 도입 및 확충이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진입 확률을 높일 것이라 여겨진다.

유연 근로와 관련해서는 IT 기술을 이용한 재택근무의 확대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직장에 종사하던 여성들의 재택근무 확대뿐 아니라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IT 및 인터넷 기반에 의지하는 노동시장의 확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업무를 전달받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프리랜서의 방식이다. 물론 이런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확대에는 일의 성과와 보상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반과 신뢰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특수고용자에서 보듯이 나타날 수 있는 노동자성 등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인 보완 등이 필요하겠지만, 미국의 E-lancing 사업의 성장의 예)는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고학력 여성의 비중이 높은 곳에서는 더욱 관심 있게 고려해 볼만하다.

모델 1, 2, 3의 배우자의 자영업여부와 관련된 추정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여성의 일자리가 배우자의 자영업에 강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노동 형태로서의 여성 재취업은 임금노동자의 비중 감소와 무급가족노동자의 비중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적극적인 가족사업 참여자로서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불완전취업(underemployment)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이 모두 포함된 여성고용률의 통계가 여성재취업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여성 고용과 관련한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KLI**

<참고문헌>

김주영·우석진(2010), 『노동시장 재진입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2010), 『201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The Economist(2010), “Work in the digital age: A clouded future”, May15th-21st 2010, pp.69~70.

1) The Economist지의 2010년 5월 15일~21일호 기사, 「Work in the digital age: A clouded future」를 참조.